

“선조들 지혜 불가사의합니다”

산문박의 100년

문화재보존과학자 이태녕 박사

“어느 봄에 후딱 지나가버렸어. 단조로운 생활이었지. 평생을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한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을 게 있다고... 바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자의 취재를 사양했다. 바쁘다는 이유는 사실이었다. 지난 16일 동충동 언덕배기에 있는 그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제자에게 건네 줄 논문을 프린트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10월 초 중국고문서학회에 1주일 다녀오느라 인터넷의 최신정보를 검색하는 작업에 지장이 생겼고, 이 일을 매꾸느라 바빠 수박에 얹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 전공의 최신정보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신정보들을 제자들에게 보내는 일은 그의 주요한 일과이다.

동충동 연구실은 그의 아버지의 체취가 서린 곳이다. 국사학계의 거두 이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유네스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피바디대학 등에서 1년 동안 문화재보존과학을 공부했다. 이때도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다. 멕시코 마야유적지 유물 곳곳에 쓰인 푸른 옥색 안료는 진흙과 우리나라의 ‘쪽’과 비슷한 천연안료인 인디고라는 비밀을 밝혀냈다.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고심하던 숙제를 그가 푼 것이다.

천연안료 ‘인디고’ 비밀 밝혀

석굴암과 관계되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73년이였다. 그가 속해 있는 석굴암연구팀에서 시멘트건물을 지어 전시하지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 그는 연구실에서 제의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지 않다면 보고서에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시멘트건물을 짓자는 안은 폐기됐다. 연구 결과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과학



건물구조와 관가(경관곳이)구조가 환기와 햇빛을 건물의 방향과 더불어 조절함을 실험결과를 통해 밝혀냈다.

세계유산보존 ‘인류의 사명’

“대장경 보존의 해답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독특한 지형과 자연환경에 조화롭게 설계된 장경각 건물과 판가이다. 즉 경사분지에 위치한 서남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건물의 방향과 특징있는 창문, 경관배열 상태 등이 기상과 조화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두 장씩 포개 세워져 있어 있는 경관의 독특한 배열방향이 굴곡효과로 대류를 촉진시키고 지나치게 습기를 포함한 대기일 경우는 경관이 수분을 흡수하며, 건조한 대기에서는 수분을 방출함으로써 폭재의 변형을 막는 일정한 범위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연구에 몰두하면서 이 박사는 팔만대장경과 관전에 대해 ‘불가사의하다’는 감탄을 거듭했다고 털어냈다. “거룩한 불사의의 귀의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조상들의 지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었음은 물론 지난해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인근에 48만평의 산을 파헤쳐 골프장을 만든다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침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가 조금은 흥분했다. “어떠한 미소한 환경변화도 팔만대장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실험을 통한 안전성 보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일 가야산 중턱 해인사 주변의 대기의 습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자연과정을 시도하는 모험을 하는 일 또는 이것을 방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세계유산을 보존할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재는 모험은 물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정성운 기자

‘대장경-자연’ 조화 완벽... 해인골프장 있을수 없어 석굴암연구팀 명단 제외 요청 ‘올곧은 성품 일화’

병박사가 선친이다. 정년퇴직 이후 이곳에 매일 출근한다. 복잡한 시간을 피해 빠르면 아침 7시, 늦으면 10시에는 반드시 문을 연다. 94년과 95년은 팔만대장경 보고서를 제출하느라 새벽이 되어야야 퇴근했다. 요즘도도 전철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야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인터넷 정보검색 ‘주요 일과’

그는 원래 화학자이다. 지난 56년 이후 졸업 서울대사범대학 화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유기화학 천연물화학 공학 등의 화학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그러나 그는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문화재보존 과학자로서 더 알려져 있다. 79년부터는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ICROM)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60년대초로 기억되는데,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석굴암 관계보고서가 틀린 것을 밝혀냈어요. 보존부 뒤의 호르는 물은 새는 것이 아니라 결로현상에 따른 응축수라는 것이 내 주장이었지.”

자로서의 면모와 그의 올곧은 품성을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문화재보존과학에 있어 재질의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이루고 있는 재질의 성격을 알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구는 해인사 고려대장경과 판전 연구에도 이어졌다. 93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현황과 배치 상태, 경관을 보관중인 장경각의 환경 등을 기록한 과학적인 신상명세서를 담은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이 박사 책임하에 이루어진 이 학술조사에는 미생물학 입학 고분자공학 건축과 고체화학 기상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학술조사팀은 1천2백여장의 대장경판을 조사했으며, 8백30여장에 대해서는 고유번호 배열위치 특성 변형상태 등 34개 항목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작고치 15권 분량에 이르렀다.

장경각 벽면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넓은 유지창, 그것도 위에래 앞뒤의 창 크기가 다른 독특한 배열상태의

일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문 좀 어리석은 질문 같습디만 누가 무슨 일을 하려고 시켰는데 그 일이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관용·청주시 흥덕구 병영동)

답 생각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그럴 망상이라고 해서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다 자기의 수행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듯 저렇듯,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고 사랑분별하면서 무엇이 정답이냐고 궁궁거릴게 아니라 그냥 딱 맡겨 버리세요. 어차피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서 해결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주인공! 네 몸 네가 이끌고 가는 것이니까 일어서 하라!고 해버리라 말입니다.

우리 몸통이는 과거에 행한 악업-선업의 동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저런 것들이 무시로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이게 옳냐 저게 옳냐하고 머뭇거릴 겁니까?

하고 싶다, 하기 싫어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스스로 다스릴건 다스리고 그대로

해 나의 현재적식은 마부이고 나의 근본생명 에너지는 소인생인데 그게 둘이 아니니 상대를 두고 비는 것, 믿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근본생명에너지, 말하자면 불성은 누구나 다 똑같아서 직결이 되어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겉데기에 얽매어서 너와 나를 따르보니까 내가 되고 상대가 되는 것이지요. 근본에 있어서는 너·나·가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 겉데기로 나와 동생은 둘이 아니라는데... 하는게 아니라 근본에서 직결되어 있으니 모습만 다를뿐 같아 이겁니다. 가령 여기에 물이 두컵 있다고 합시다. 그냥 놓고 보면 아깝, 저컵이 다르지만 이 컵의 물을 저 컵에 부으면 그냥 구분없이 한컵의 물이 됩니다. 그와 같아서 내가 한 생각으로 옮겨 부으면 그대로 하라,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 도리를 모르더라도 관계없이 내가 그냥 한마음이 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복이라 하겠습니까? 물 한컵이라고 하니까 또 물 컵을 생각하면서 뭘 보태주고 없애지고 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근본생명의 에너지는 무한대이고 물한컵 옮긴다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냥 한참이나 모습이 없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전백역 하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거나 공경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이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행할건 행하면서 체험을 하게 중요하지 외로 재어보고 바로 재어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몸통이 갖고서 행을 하는 것, 이런 저런 망념이 떠오르는 것은 몽땅 다 나를 성숙하게 하기위한 공부의 재료요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행할건 행하고 안전한 안하면서 그것으로 그쳐는게 아니라 거기서 맛을 보아야 합니다. 화두를 들고 경을 읽어야만 공부야 아닙니다. 또 선지식들이 걸어간 길을 흉내내는 것도 공부가 아닙니다. 뭇낫은 잘못된 자기가 실험하고 자기가 맛을 보아야 안팎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나 안맛나를 논하지 말고 하고싶은 것은 하고 놓고, 하기 싫은 것은 싫은대로 놓고 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되어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체험을 하게 공부입니다.

치병기원도 기록아닌지

문 스님께서는 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오랜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제 자신의 일보다 그 일에 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아니니까 다행히 하는게 기록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오혜숙·인천 남구 주안4동)

답 기록이란 상대를 두고 믿는 것, 비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으로 말하면 소와 달구지와 마부 같은 것인데 마부가 소의 힘을 믿는거야 기록일 수가 없지요. 다시말

신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수단이 합쳐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단을 깨내어도 줄지 않으니 들고 내면서 그냥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뭘 어쩌라고 하는게 아니라 내 근본의 자기 주인공에게 물어 대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밖이 아니라 안이지요.

다만 동생이 이 도리를 전혀 모르는 것과 이 도리를 받아드리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도리를 알면 믿는만큼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세심불가득이란 뜻은

문 삼세심불가득에 대해 여쭙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그 경우에 부뭇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김진중·서울 은평구 대조동)

답 그런건 말로해서 대답을 듣는게 아닙니다. 실사 내가 그 뜻이란 어떤 것이라라고 설명해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음알이만 킁킁뿐이지요.

날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데 이 도리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는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심 미래심 하는데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먹고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는게 그대로 점심이다 이 말입니다. 점심! 내가 목이 마르면 내일에 물이 한컵 있으면 그대로 마실 뿐이지 그 물의 성분 따지고 컵의 생김새 따질겁니까? 그건 도가 아닙니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깨끗, 응집심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 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학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엄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결핵(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있다	()
18. 당뇨와갑상선이상통발한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